

을 집작할 도리는 없었으나 길과 風景이 옛날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졌을
 니다. 이곳에는 새로 마련된 殿塔이 있고 그 周圍에는 僧院發掘지가 깨끗이 整
 理되어 있었습니다. 印度의 佛蹟은 모두 昨今世紀에 걸쳐서 考古學發掘로서 들
 어난 것이운데 그 중에서도 重要な 곳은 中央政府의 管理로서 公園과 같이 가꾸
 어 놓았습니다. 이같은 곳에 찾을 때마다 우리의 古蹟特히 新羅의 臨海殿址나 皇
 龍寺址의 오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翌朝이 곳에서 멀지 않은 釋尊茶毘處로 古塔을 찾은 다음 卽시 出發「고라
 카폴」驛에서 汽車로 바뀌타고 저녁七時「노갈푸」驛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곳
 驛頭에서 警察에 制止되었기에 釋迦誕生地인「룬비니」行을 斷念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國境을 六哩넘어서는「넬라」땅이기에 證明書가 必要하다는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아무手續없이 다녀왔다고 하기에 不快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中
 共侵入에 따르는 事態일 것이라고 自身을 說得시키면서 같은 車로 深夜에「과
 루란폴」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는 無斷乘車하였다고 倍額의 運賃을 치르게 되었
 습니다. 八大聖蹟을 찾으려는 計劃은 이곳에서 挫折되었으므로 다른 한 곳「상가
 시아」도 斷念하고 갈았는데 이 두 곳에는 注目할만한 遺物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待合室에서 하루밤을 새우고 첫 卽시 車에서 四十
 里 北方인「사헤트·마헤트」에 이르러 祇園精舍와 舍衛城의 遺址를 찾았습니다.
 二月六日의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釋尊이「二四兩期를 지냈다」는 곳이며 富裕한
 商人이 金貨를 땅에 퍼서 用紙를 얻었다는 그리는 모두 發掘되어 있었으며 贊
 속의 城址는 유명한 佛陀의 奇蹟을 연상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날 午後車로 떠나 밤八時「라크노」에 당도하였습니다. 人力車는 이곳서 제
 일큰 호텔로 인도하여 주었기에 비싼값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몸은 편히 될 수 있
 었습니다.「라크노」에서는 州立博物館을 찾았는데「마투라」에서 初期에 發掘된
 유품이 모두 이곳에 集中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Jain教의 作品은 初期의
 佛敎彫刻과 恰似함이 注目되었습니다. 午後에는 梨花女大에서 一年間 奉職한 바
 있는「아부라함」女史를「이사바라」大學으로 찾아 歡迎을 받았고 郊外의 回敎宮
 殿을 보고자 夕陽길을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二月八日 아침 晩車편으로「아라하바트」에 到着하였습니다. 豫定日보다 일렀
 기에 아大學의 古代史料主任인「찰마」敎授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敎授를
 이親切히 맞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校內의 博物館도 兩日에 걸쳐 자세히 說明
 하여 주었고, 하루는 百里 떨어진「카우삼비」古都址의 發掘現場까지 同行하여 주

었습니다. 이 發掘은 十餘년에 걸친 大規模의 作業으로서 여러 곳에서 소문을 들
 은 바도 있었는데 果然規模도 크고 重要な 成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發掘現場은
 城址·宮殿址·寺院址로 區分되어 있는 바 遺物의 年代는 紀元前十一世紀로부터 紀
 元後八世紀에 이른다 하며 이 發掘을 통하여「인더스」河文明 以後의 古代史의
 一面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인더스」와「간디스」兩河文明의 間隙을 메꾸는 努力
 이 印度考古學의 當面課題라 하며 그 目標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
 습니다. 그 외에도 印度最古의 石造城廓 博築아「치手法」또는 人間犧牲의 事實
 등이 이곳서 確認되었다고 하며 寺院址에서는「아소가」王塔이 옛모습을 보이
 고 있었습니다. 이곳 踏査는 무척 힘이 들었으나 많은 報告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二月十一日 아침에 夜行車로「아그라」에 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有名한「다
 지마할」과 Red Fort를 찾았는데 큰 규모에 비하여 感銘은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高麗 恭愍王의 魯國公主에 대한 사랑과 그에 따르던 陵墓經營의 史實이 이곳에서
 聯想된 것은 서로 닮은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翌日「마투라」博物館을 다시 찾은 다음 夕陽에「뉴·델히」에 當到하니 내집
 에 돌아온 듯하였습니다.
 四十일에 걸친 旅行을 無事히 끝냈다고 생각하니 만족한 느낌과 즐거움이 솟
 아오르는 듯하였습니다. (三·一節 아침에)

第四卷 第四號 通卷三十三號
 慶州 南山 彌勒谷의 磨崖石佛坐像

秦 弘 燮

慶州 南山 彌勒谷에 菩提寺가 있고 그 境內에 完存한 石佛坐像이 있음
 은 周知의 事實이며 이미「慶州南山佛蹟」에 詳細히 紹介된 바 있다. 그런
 데 이 溪谷을 거의 다 올라가서 法堂에 이르기 전에 小屋이 있고 여기
 서 左便으로 꺾기는 狹路를 따라 비탈길을 東쪽으로 접어들어 일마안가서
 右便으로 위를 보면 大小 岩塊가 散在한 가운데 東北方으로 面한 幅一·
 二m 高三·二m의 岩石이 있어 그 正面에 如來坐像이 彫刻되었다.

이 佛像의 位置가 菩提寺에서는 咫尺之間이오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不拘하고 南山全體의 佛敎遺蹟을 빠짐 없이 調査 收錄한 前記「慶州南山佛蹟」에서 漏落된 理由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前記 報告書에는 破塔 瓦片에 이르기까지 報告되어 있는데도不拘하고 秀作에 屬하는 이 佛像이 言及되지 않았음으로 여기 紹介하여 두 고자 한다.

前記한 岩石은 佛像이 彫刻된 面만이 一定한 두께로 된 바위에서 分離되어 있는데 그 前面에 光背形으로 길이 約 四cm의 龕形을 파고 佛像이 彫刻되었다. 光背形은 頭部・身部・膝部에 該當하는 部分에서 屈曲을 두고 頂部는 寶珠形을 이루었다. 像은 매우 保存狀態가 좋아서 刀痕이 明瞭하다.

頭髮은 螺髮로 하나 하나 刻明하게 表現되었는데 肉髻는 그다지 크지 않다. 兩耳는 길게 늘어졌는데 相好는 豐滿優麗하다. 눈은 실눈같이 가늘고 眉線도 매우 아름답다. 鼻梁는 낮아 보이나 鼻端에 若干의 損傷이 있는 듯도 하다. 口脣은 比較的 적은데 微笑를 품고 있다. 이 微笑는 口脣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볼에 살을 붙이고 눈을 가늘게 함으로서 顔面의 筋肉全體가 움직여 微笑를 나타낸 것으로 놀라운 寫實的 表現이라 하겠다. 목은 짧은데 三道가 簡單히 나타나 있다. 法衣는 通肩인데 衣文의 表現은 그다지 明瞭하지 않다. 兩手는 紐部를 가리면



서 腹部에서 前面으로 늘어진 衣端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데 이러한 式은 이 附近에 있는 佛谷磨崖如來坐像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두 팔이나 結跏趺坐한 무릎에 나타난 衣文은 數條의 線

으로 매우 簡單하게 取扱되었는데 顔面 彫刻에 比하면 疎忽함이 지나친 感이 있다. 前面에 늘어진 衣端만은 제법 衣褶을 表現하려고 하였으나 亦是 大端치 않게 지나친 탓인지 매우 鈍해 보인다. 膝下에는 重瓣으로 表現된 蓮花 三葉이 前面에만 있는데 이 亦 刻線이 稀微하다.

以上은 이 佛像에 對한 大綱의 記述이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面相은 至極히 功을 들여 新羅佛로서 秀作이라 하겠으나 下體로 내려올수록 粗放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龕形 亦是 頭部에서는 깊이 왔으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얕아져서 蓮瓣에 이르러서는 岩石表面과 같아지고 만다. 衣文은 매우 두꺼워서 肢體의 表面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均衡이 잡힌 體軀에 上體의 彫刻은 불만하고 龕形의 形式은 特異하다. 那樣式이나 彫刻 手法으로 보아 前記 菩提寺의 石佛坐像보다는 年代가 앞서는 作品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八世紀 中葉을 前後한 作品이 아닐까 생각된다. 本像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龕形高一・四八m 同下部幅 八三cm
像坐高一m 膝幅 七三cm 肩幅 五九cm 頭高二九cm

辛亥銘白磁砂鉢

崔 淳 雨

李朝初期에 屬하는 在銘白磁器는 그 例가 매우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紀年銘은 더 드물어서 初期白磁 編年研究에 재 資料의 出現이 待望되어 왔었다. 이번엔 우연히 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蓮谷里에서 李斗永氏가 同氏의 祖父墓를 移葬하다가 發見해서 國立博物館에 報告해 온 辛亥銘白磁砂鉢같은 것은 이러한 紀年銘資料로서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遺物이라고 할 수 있으며 稀貴한 李朝白磁編年資料를 하나 더한 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白磁砂鉢의 出土狀態와 伴出物에 關해서는 詳細한 情報을 얻지 못했으나 다만 또 하나의 同形小砂鉢이 申告되었을 뿐이며 여